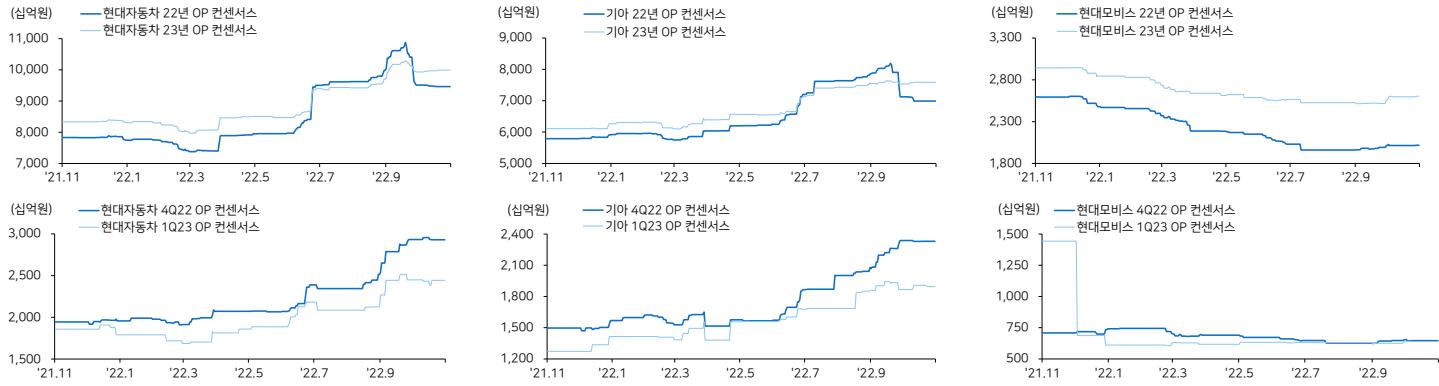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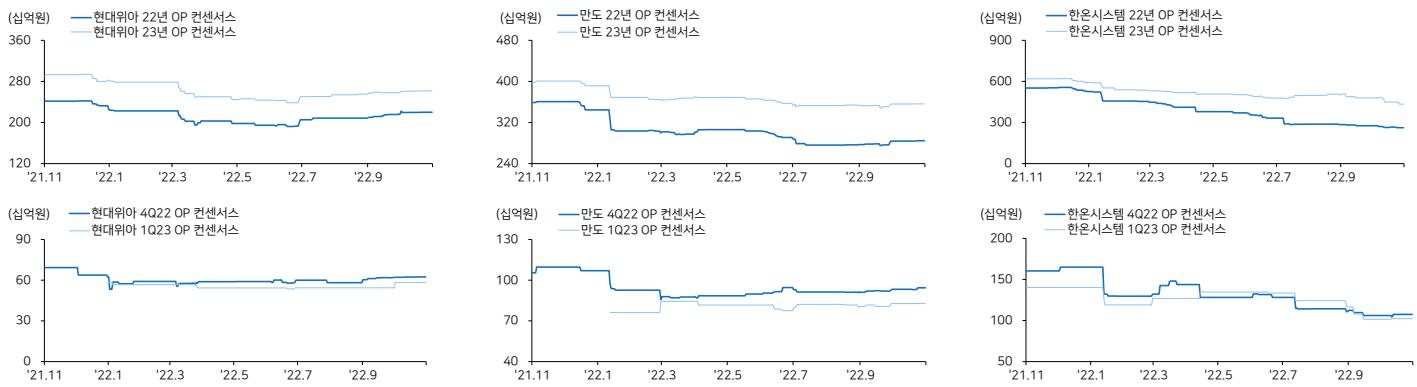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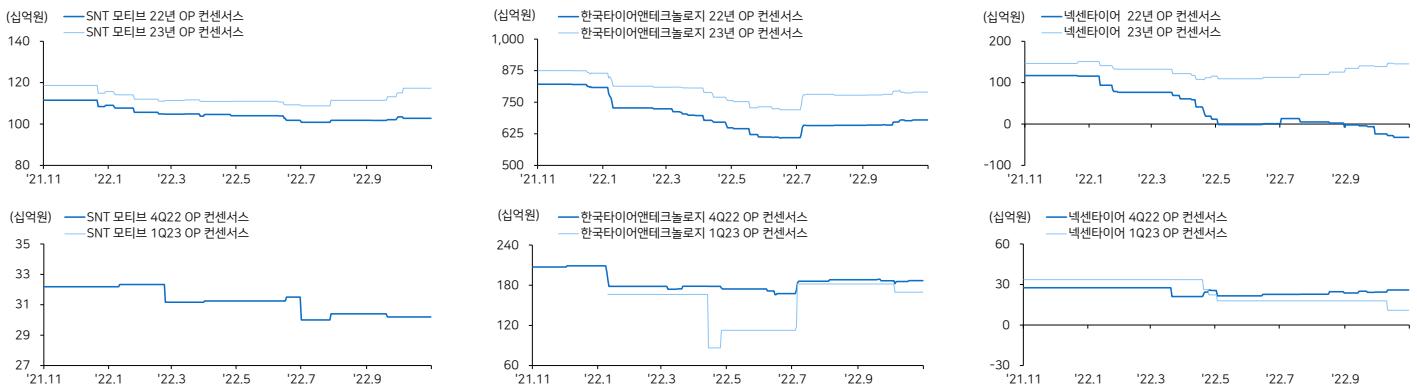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美 기존 공장서 전기차 혼류생산 검토…IRA 대응 (이데일리)

현대차그룹이 미국 IRA 하위규정에 관련 규정이 포함된다는 전제로 조지아 등 기존 공장에서 전기차 혼류 생산을 준비, 정부도 IRA 하위규정 확정에 앞서 전기차 수출물량의 3분의 1에 이르는 리스·렌터카의 상업용 차량 포함을 위해 총력전.

<https://bit.ly/3FdKJqc>

민주총 5개월 계릴라 파업에…한국타이어, 공장폐쇄 검토 (한국경제)

민주총총한국타이어(이지희)의 계릴라성 파업이 5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한국타이어가 대전과 충남 금산공장의 직장 폐쇄를 검토 중. 이미 파업으로 인해 일부 생산분을 중국으로 이전. 강성노조의 명분 없는 파업이 제조업의 해외 이전을 부추긴다는 지적.

<https://bit.ly/3AVMSci>

China NEV Insurance registrations in 4th week of Nov: BYD 38,480, Tesla 16,121, NIO 3,759 (CNEV)

보험 등록으로 추정한 중국 NEV 차량 판매는 11월 4주차 감소하였으나, BYD/Tesla/NIO 등 업체의 판매는 건조. Tesla는 11월 1, 2, 3, 4주차에 각각 11,195대, 13,939대, 14,366대, 16,121대를 판매한 것으로 추정됨.

<https://bit.ly/3FaXxxE>

Baidu aims to build world's largest fully driverless ride-hailing service area in 2023 (CNEV)

Baidu의 자율주행 자회사 Apollo는 29일 열린 Apollo Day에서 2023년 세계 최대 무인로보택시 서비스 영역을 구축, 성장 모멘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3Q22 버이두는 yoy 311%, qoq 65% 증가한 47,4000회의 로보택시 승차서비스를 제공.

<https://bit.ly/3FcgnUY>

현대차 현지 자회사 '모션캡' 청산…미국 카셰어링 포기하나 (일요신문)

현대자동차가 최근 미국 카셰어링 자회사 모션캡을 청산한 것으로 확인. 실증 사업에 대한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향후 카셰어링 사업 진출과 관련해서도 말을 아끼는 중. 자동차 업계는 미국 카셰어링 사업 전망에 부정적.

<https://bit.ly/3GRJ5fb>

구독형 '열선시트는 소비자 기만일까…美서 금지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미국에서 최근 나오는 완성차의 일부 구독형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 열선시트나 조향시스템처럼 이미 신차 출고 당시 정착된 기능을 운전자가 실제 활용하기 위해선 구독하도록 하는 사업모델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

<https://bit.ly/300c05N>

China's BYD to sell EVs in Mexico next year, aims up to 30,000 sales in 2024 (Reuters)

중국 전기차 업체 BYD는 내년 멕시코에서 Han/Tang EV 모델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힘. 2023년 10,000대, 2024년 30,000대를 판매할 계획이며 상기적 MS 목표는 10%로 설정했다고 언급. 멕시코는 EV 점유율이 여전히 낮은 국가.

<https://reut.rs/3GWsrlE>

VW reportedly in talks with Foxconn, Magna to manufacture Scout brand EVs (electrek)

지난 5월 VW는 전동화를 위해 오프로드 스포츠카 브랜드를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한 이후. 차량 제조를 위해 폴스콘, Magna 등의 업체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폴스콘은 지난 9월부터 Lordstown의 픽업트럭을 제조 중.

<https://bit.ly/3Q0xK0L>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